

2020년 10월 27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코로나 확산과 실적 우려로 하락 SAP 영향으로 페이스북(-2.70%), 알파벳(-2.98%) 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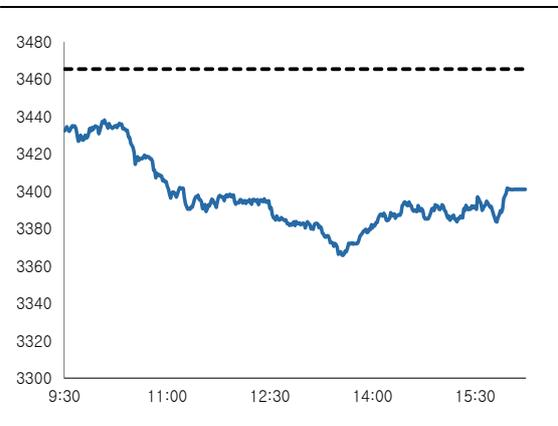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코로나 사태 ② 추가 부양책 지연 ③ SAP 실적

미 증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급증 여파로 매물 출회, 특히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유럽 경제가 위축 될 것이라는 전망도 부정적인 영향.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23.16%)가 급락하자 주 후반에 있을 대형 기술주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 진 점도 부정적.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도 부담을 줬으나 장 마감 직전 부양책 기대가 재 부각되자 낙폭 축소(다우 -2.29%, 나스닥 -1.64%, S&P500 -1.86%, 러셀 2000 -2.15%)

미 증시는 코로나 사태와 추가 부양책 논란, 독일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23.16%) 급락 영향으로 부진. 지난 주말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만명을 상회하는 등 최고치를 넘어섰음. 여기에 7일 평균 하루 68,767 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은 경제 봉쇄를 단행하며 경기 회복 둔화 가능성을 높임. 유럽도 프랑스 등이 하루 5만명을 넘어 서는 등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음. 이 영향으로 유럽 경제 위축 우려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가 점차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 물론 3 월처럼 전면적인 봉쇄 가능성은 없어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핀셋 봉쇄는 지속될 수 있어 경기 위축 장기화 가능성을 높임

여기에 추가 부양책 협상 난항도 투자 심리 위축을 더욱 부추김.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 했으나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 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속도가 지연 되고 있다고 주장. 실제 이날 오후 2 시 펠로시와 므누신의 협상이 시작됐으나 결과가 도출 되지 않음. 다만, 펠로시 대변인이 장 마감 직전 논의 진전을 발표해 낙폭 일부 축소. 한편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 가 실적 발표 후 급락 한 점도 부담. SAP 는 데이터를 이용해 업무용 앱을 개발하는 회사로 많은 대기업이 관련 제품 이용. 지난 여름 하반기에 수요 개선을 발표 했으나 이번에 낮은 가이던스를 발표하자 급락한 것. 특히 코로나로 인해 주요 기업들의 수요가 감소했다고 발표해 온라인 광고 수익 둔화 우려가 높아진 페이스북(-2.70%) 등 대형 기술주 하락을 야기했고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부진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43.91	-0.72	홍콩항셱	24,918.78	+0.54
KOSDAQ	778.02	-3.71	영국	5,792.01	-1.16
DOW	27,685.38	-2.29	독일	12,177.18	-3.71
NASDAQ	11,358.94	-1.64	프랑스	4,816.12	-1.90
S&P 500	3,400.97	-1.86	스페인	6,796.90	-1.40
상하이종합	3,251.12	-0.82	그리스	595.97	-2.67
일본	23,494.34	-0.09	이탈리아	18,945.14	-1.7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엇갈린 대형 기술주 주가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23.16%)는 상향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발표하자 급락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영향으로 광고 수익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알파벳(-2.98%), 페이스북(-2.70%), 트위터(-2.85%) 등 온라인 광고 수익 기반 기업들의 낙폭이 컸다. 이는 지난번 IBM(-3.26%)이 실적 발표에서 고객들의 우선 순위가 안정성과 현금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언급에 이어 SAP 또한 이러한 발표를 하자 MS(-2.84%)는 물론 세일즈포스(-3.41%), 서비스나우(-2.41%) 등 소프트웨어 업체 또한 하락폭이 컸다.

한편, 코로나가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자 델타항공(-6.09%), 보잉(-3.90%) 등 항공업종, 부킹닷컴(-4.07%), 디즈니(-3.34%) 등 여행주, 카니발(-8.66%) 등 크루즈 업종, 윈 리조트(-3.97%) 등 카지노, 리조트 업종, 캐터필라(-3.20%) 등 기계 등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 반면, 아마존(+0.15%)과 넷플릭스(-0.01%), 줌 비디오(+1.23%) 등 언택트 관련주는 약보합에 그치거나 상승했다. 더불어 아스트로제네카(+2.06%)는 임상 시험에서 고연령층 등 모든 대상자에 항체가 생성되었다고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애플(+0.01%)도 아이폰12 시리즈 기대 속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30%	대형 가치주 ETF(IVE)	-1.94%
에너지섹터 ETF(OIH)	-3.80%	중형 가치주 ETF(IWS)	-2.36%
소매업체 ETF(XRT)	-2.55%	소형 가치주 ETF(IWN)	-2.47%
금융섹터 ETF(XLF)	-2.26%	대형 성장주 ETF(VUG)	-1.70%
기술섹터 ETF(XLK)	-2.17%	중형 성장주 ETF(IWP)	-1.7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83%	소형 성장주 ETF(IWO)	-1.95%
인터넷업체 ETF(FDN)	-1.93%	배당주 ETF(DVY)	-1.85%
리츠업체 ETF(XLRE)	-1.21%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3%
주택건설업체 ETF(XHB)	-3.2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20%
바이오섹터 ETF(IBB)	-1.01%	미국 국채 ETF(IEF)	+0.27%
헬스케어 ETF(XLV)	-1.11%	하이일드 ETF(JNK)	-0.80%
곡물 ETF(DBA)	-0.33%	물가연동채 ETF(TIP)	+0.08%
반도체 ETF(SMH)	-2.14%	Long/short ETF(BTAL)	+1.46%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21.99	-3.47%	-0.88%	-5.30%
소재	404.43	-2.46%	-1.71%	+1.30%
산업재	668.60	-2.50%	-1.82%	+1.58%
경기소비재	1,232.00	-1.44%	-0.49%	+1.89%
필수소비재	663.07	-1.27%	-1.32%	+1.19%
헬스케어	1,242.03	-1.11%	+0.41%	+2.51%
금융	410.10	-2.23%	+0.35%	+2.53%
IT	2,038.32	-2.17%	-2.50%	-0.20%
커뮤니케이션	199.98	-2.27%	+1.71%	+2.71%
유틸리티	328.94	-0.05%	+2.00%	+9.91%
부동산	218.11	-1.20%	-0.94%	-0.4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하락 출발 후 중국 증시 변화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5% MSCI 신흥 지수 ETF 는 1.30%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2.9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성과 추가 부양책 논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 가능성이 높아지자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국제유가 및 국채금리 하락 등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돼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 확산과 부양책 논란은 이미 어느정도 예견되고 알려져 있던 부분이었지만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은 부담이다. 실제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 가 개선 될 것으로 알려진 수요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실적 발표 후 20% 넘게 급락해 독일 닥스 지수가 3.71% 하락 했다. 문제는 SAP 가 코로나로 인해 일부 지역의 봉쇄가 진행되자 수익의 의미 있는 회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개별 기업들의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을 높인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아스트라 제네카(+2.06%)가 백신 임상 결과 고연령층 등 모두에게서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고 발표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에 기반해 제약, 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종은 낙폭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 대형 기술주 중 아마존과 애플은 실적 개선 기대가 여전히 유입되며 강보합을 보인 점 또한 우호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은 불가피 하지만 최근 약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 낙폭이 확대되기 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중국의 5 중 전회가 진행되고 있어 이곳에서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 변화할 중국 증시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주택지표 둔화

10 월 달라스 연은 기업 활동지수는 전월(13.6) 보다 개선된 19.8 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14.7→19.9), 생산지수(22.3→25.5) 등이 개선되었으나 고용지수(14.5→8.7)은 하락했다.

9 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99.4 만건)이나 예상(101.6 만건)을 하회한 95.9 만건을 기록했다. 평균 판매 가격은 전월(32 만 2,400 달러) 보다 상승한 32 만 6,800 달러를 기록했다.

9 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는 전월(1.11)이나 예상(0.39)를 하회한 0.27 로 발표되었으며 3 개월 평균도 전월(3.22)을 하회한 1.33 으로 발표돼 미국 경기 회복 둔화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였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수요 둔화 및 공급 증가 이슈로 3.2% 급락

국제유가는 코로나 재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수요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3% 넘게 하락했다. 특히 유럽의 주요국이 경제 봉쇄를 확대 한 점이 영향을 줬다. 여기에 주 후반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이 아니라 플로리다를 강타할 것이라는 점도 수요 둔화 이슈를 자극했다. 더불어 리비아의 증산 가능성이 확산되는 등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이슈가 부각된 점이 낙폭 확대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코로나 재 확산이 본격화되고 경기 부양책 논란이 지속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영향으로 일부 국가가 경제 봉쇄를 확대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이는 4분기 유로존 경기 위축 가능성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재 확산이 본격화 되자 경기 회복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특히 일주일 평균 하루 68,767 건을 기록하는 등 유럽에 이어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은 향후 미국 경기 위축 가능성을 높인 점이 영향을 줬다. 여기에 WHO 가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 생활의 희생이 필요하며 경제 봉쇄 가능성을 높인 점, 그리고 미국 일부 주 정부가 실제 경제 봉쇄 조치를 확대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며 안전 자산 선호심리 부각 영향으로 강보합을 보였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위축 및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9% 철근은 0.66%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8.56	-3.24	-6.09	Dollar Index	93.067	+0.32	-0.39
브렌트유	40.46	-3.14	-5.07	EUR/USD	1.1808	-0.44	+0.33
금	1,905.70	+0.03	-0.31	USD/JPY	104.84	+0.12	-0.56
은	24.420	-1.03	-1.13	GBP/USD	1.3023	-0.12	+0.58
알루미늄	1,827.50	-0.81	-1.40	USD/CHF	0.9078	+0.38	-0.23
전기동	6,781.00	-1.26	+0.02	AUD/USD	0.7127	-0.17	+0.75
아연	2,539.50	-0.74	+1.95	USD/CAD	1.3204	+0.60	+0.09
옥수수	417.75	-0.36	+3.08	USD/BRL	5.6189	-0.01	+0.17
밀	620.00	-2.02	-1.12	USD/CNH	6.6977	+0.45	+0.28
대두	1,083.50	+0.23	+2.80	USD/KRW	1127.70	-0.46	-1.25
커피	106.65	+0.99	+0.57	USD/KRW NDF1M	1132.91	+0.38	-0.7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803	-4.02	+3.37	스페인	0.184	-0.90	+2.70
한국	1.485	-1.00	+4.50	포르투갈	0.157	-1.40	+2.00
일본	0.035	-0.60	+0.90	그리스	0.915	-0.30	+10.00
독일	-0.580	-0.60	+4.80	이탈리아	0.737	-2.00	+1.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